

# 아동문화

Child Cultures

정대련(Daeryun Chung)<sup>1)</sup>

백혜리(Hae-Rhee Baeck)<sup>2)</sup>

한선아(Sun-Ah Han)<sup>3)</sup>

## ABSTRACT

“The Child culture” is defined as a children’s life style in which they interpret their life-situations, using their comprehension system and living out their lives based on those interpretations. Although the current Korean culture of “studying (or learning)” which is referred to as a social phenomenon restraining lively childhood of children, the ideal child culture surely exists. For this research, the total number of 1,049 article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around the year 2000 were analyzed from dual perspectives : value and life of both children and adults. The research literature was reviewed in respect to the following categories : 1) the dimension of how children deal with home life including food, clothing, and shelter, 2) the domain within the boundary of elementary school to understand how they spend their important time, and 3) the domain out of elementary school to understand how they spend their leisure time.

**Key Words** : 아동문화(child culture), 아동문화활동(children’s cultural activities), 가정생활-의식주(home life - food · clothing · shelter),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여가활동(leisure activities).

<sup>1)</sup>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sup>2)</sup>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부교수

<sup>3)</sup>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Daeryun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3-1 Wolgokdong Sungbukgu, Seoul 136-714, Korea  
E-mail : cdryun@dongduk.ac.kr

## I. 현 황

### 1. 아동문화의 재인식

본 연구는 아동학회 30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의 아동문화에 대한 인식 관심의 출발점부터 돌아보고자 한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에 아동문화란 없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아동문화란 무엇인지, 또한 아동문화란 아동 스스로가 형성하는 ‘아동에 의한’ 문화인지 아니면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형성되는 ‘아동을 위한’ 문화인지의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아동들 스스로 이루어내는 문화가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이 물음은 한국인으로 태어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혹독한 아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아동들 삶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학습 내지 공부로 점철되어 있을 뿐, 아동기란 없고 단지 학동기가 존재할 뿐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단연코 우리 아동들의 아동문화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아동 대다수가 자신의 아동기를 학습이라는 활동으로 채우며 살고 있기에 그 특성 자체가 엄연한 우리나라 아동문화라고 강변할 수 있다. 학습문화도 문화의 일부인 만큼 우리나라 아동문화는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문화가 ‘삶의 양식’이란 점에는 공통적으로 동의한다. 문화가 ‘삶의 양식’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은 일상생활에서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이나 행위를 비롯하여 그러한 모든 행동과 생활이 내면적으로 일정한 행동의 기준, 가치관 내지 어떠한 사상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난

다는 말이다. 어떠한 행동이나 사회구조이든 내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문화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화는 전체적으로 모순 없는 하나의 통합 체계를 이룬다(이광규, 1980).

단적으로 UNESCO(2002)는 문화를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한다(naver 사전). 결국 문화란 인간 삶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때 삶의 조건이란 행위자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해석되고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는 바대로의 조건이다. 이러한 문화 이해에 의하면, 아동문화는 ‘아동들이 그들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삶의 조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행위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문화는 부재의 문화, 빈 문화만은 아니다. 우리 아동들에게 짐 지워진 학습이라는 엄청난 의무에 의해 그들의 문화가 짓눌리고 억눌려있을 뿐이다. 우리 아동의 문화는 그들이 투자하고 향유하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내외의 학습 및 학습과 관련한 그들 삶의 양식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2009년 현재 한국사회의 아동문화는 ‘학습문화’로 총칭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문화에 대한 시각을 학습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문화 이해로 확장하고자 한다. “현상”으로서 한국인의 아동기를 속박하고 있는 학습 이외에도, “이상”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이 향유하는 문화가 있으며 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동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문화의 양상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알려하지 않으면서 “아동문화의 부재”만을 탄식하는 성인들을 향해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아동문화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문화, 아동의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야 근본적 이해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아동이 세상을 인식하는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아동 삶의 장소, 삶의 영역을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가정’ 영역, 아동 삶의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내’ 영역, 그리고 ‘초등학교 밖’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 속 아동 삶의 조건 및 그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삶의 양식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아동문화라고 정의되는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의 경우, 아동 스스로 만들어 내고 해석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은 아직 미성년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지니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인 만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된다. 성인세대는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소망하는 가치관과 아동기에 습득해야 할 생활양식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 교육하려 한다. 결국 연구자들은 아동문화 연구에 임하면서 첫째로는 아동

스스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치관과 삶, 둘째로는 성인이 아동에게 전수·교육하는 가치관과 삶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2. 아동문화 연구 현황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아동의 삶, 그들의 생활양식 등과 관련하여 보고된 2000년대 전후의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아동문화 관련 연구의 현황 분석은 양적 분석과 연구내용 분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아동문화란 “아동들이 그들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삶의 조건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행위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정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아동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연구의 경우, 제목에 ‘아동문화’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하였다.

가정영역의 아동문화는 의생활·식생활·주생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초등학교 내 영역의 아동문화 연구는 타 분과 연구와 중첩되는 주제를 제외한 초등학교 내 수업 문화 및 수업 외 문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밖 영역의 아동문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학원 및 과외 등

<표 1> 아동문화관련 연구

구분	가정문화			학교 내 문화			학교 밖 문화			아동문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소계	수업 문화	수업 외 문화	소계	여가 시간	지역사회 문화환경	캠프 활동	소계	합계
학술지 논문	16	122	5	143	88	170	258	16	15	23	54	455
학위 논문	17	147	8	172	102	185	287	49	53	33	135	594
소계	33	269	13	315	190	355	545	65	68	56	189	1049

\* 조사대상 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학회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 총 1,049편은 가정문화 관련 315편과 학교 내 문화 545편 및 학교 밖 문화 189편의 총계이다.

학습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지만 타 분야의 연구주제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방과후 여가시간 활동과 관련된 캠프·학원·지역사회 내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아동의 여가활동 연구 분야에서 학원 및 과외 등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연구는 현황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발행 학술지와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논문 중 1049건의 아동문화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며, 가정의 의식주 관련 연구는 전체 315건, 학교 내 관련 연구는 545건, 학교 밖의 영역 관련 연구는 189 건 등으로 학교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다.

#### 1) 가정 영역의 아동문화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에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발달이 현저히 나타나며,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과 학교생활의 영향으로 성격 및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뚜렷해진다. 9세 이전 아동기에는 의복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나, 9-11세에 이르러 의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12세 이후에는 의복이 자기에게 어울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박옥련, 1984). 또한 학령기 아동의 소속 욕구는 특정 상표에 대한 집착으로 표출되기도 한다(이성훈, 1991).

의생활과 관련된 아동문화는 의복의 색채나 디자인을 비롯하여(김정옥, 2000; 김수희, 1982), 의복을 구입하는 계기나 착용(장봉옥·이운정, 2009; 이경손·박문혜, 1983), 비만아동이나 신체 장애아의 의생활(정운선·이혜상·박응임, 2003; 심성식, 1976), 의생활 태도·인식이나 의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장봉옥, 2009; 이성숙·박행모·방기혁, 2009; 이금희, 2007; 정미경, 2007; 홍월영, 2006; 김수진, 2005),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의복 치수(이형숙, 1982; 최영희, 이순

원, 1980)에 관한 연구 주제와 연계하여 다루어져 왔다.

한 집단의 음식문화는 자연환경에 의해 끊임 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지역 민족 문화의 내용과 특성을 결정한다(강인희, 1993). 특히 아동 삶에 있어서 음식문화와 식생활은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바, 오랜 기간 연구주제로 선택되어 왔다. 최근 유기농 및 웰빙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다 다양한 음식관련 연구주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생활과 관련한 식(생활)생태 및 식습관(김현아, 2009; 최주연, 2009; 서주영·이인숙, 2008; 장순옥·박민정, 2008; 이준호·박진선, 2008; 이현옥, 2004), 영양 및 영양교육(양영순, 2009; 한혜경, 2008; 한혜미, 2008; 한혜미·이성숙, 2008), 편식(최미경·이윤신, 2009; 김수영·김희섭, 2008; 주나미·김성희·박희나, 2006), 비만·빈혈·아토피 등 체형·체중관련 문제(최미경·배윤정, 2008; 홍선희·김영아, 2009; 김재중, 2009; 허영희·최미자, 2006; 김혜경, 2003), 학교 급식(김미숙, 2009; 손정화, 2009; 김무환·이경애, 2003; 김영희·서정숙, 2004; 이보숙, 2002), 전통음식·김치·전통음식문화교육(최미숙·정은희·현태선, 2002; 정성진, 2009), 식그릇(식기)(김수연, 2009; 김잔디·배윤경·조미숙, 2009; 이보숙, 2002), 가공식품(강문희·윤기선, 2009; 김유미, 2008; 정혜경·강명화, 2003), 특수아·탈북자 등의 식생활 문제(배윤경, 조미숙, 2009; 홍선희, 김영아, 2009; 김숙희, 2009; 신은미, 2009; 장남수·강은영·이종미, 2000; 박영숙, 1998) 등등, 아동의 식생활 문화 경험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공동주택이 조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45년이 지난 현재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급속하게 대체되면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양한 구성원 가운데 아동은 주거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단지 내의 외부환경을 사용하는 집단 가운데 15세 이하의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최목화, 2001).

그간의 연구들은 1990년대까지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아파트에서의 삶이 중산층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한다(함인희 외, 2001).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아파트와 중산층 지위의 결합은 집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단지 물리적인 구조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박소진, 2007). 주거공간인 집은 경험된(lived) 관계의 장소일 뿐 아니라 물리적인 문화와 사회성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며 ‘사회적 지위의 구체적인 표지’이기도 한 것이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주거공간의 형태가 각각의 주거지 내 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까지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생활 문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과 같은 주택의 형태를 기준으로(김용범, 2009; 임미숙, 1992), 공부방·욕실·가구 등 주거 공간 내 개별 요소를 기준으로(고창환, 1986; 이영심, 1996; 김종철, 2009) 또는 주생활 관련 교육내용을 중심으로(이성숙·박행모·방기혁, 2009; 정진현, 2001) 아동의 주생활 문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초등학교 내의 아동문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학교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입하고 행동규범을 통제하며 학생 문화에 대해서는 강제, 억압,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문화는 주로 “빈 문화”로 기술되곤 하는데(조강모, 2000), 사실 다소 공허한 느낌을 주는 빈 문화적 특징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문화에 국한되기보다는 초등학교 문화 자체의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오정란, 2000). 초등학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중 부정적인 문화가 하나의 학교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김윤배, 1998,)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성차별적 학교문화, 그리고 비교와 실패의 학교문화 등이 아동의 발달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로 남아 있다(김영천, 1998).

그러나 초등학교 내에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는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미나 느낌,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로 인식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곳, 즉 자기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오정란, 2000).

오늘날 초등학교 내 아동들의 인식체계와 그들의 인식체계에 의해서 지각되고 해석되는 삶의 조건, 인식체계와 삶의 조건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들의 놀이 패턴을 관찰하여 보면, 아동들 나름의 문화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김윤배, 1998). 초등학교 아동의 문화성향을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으로 나누어 정서지능과 분노표현양식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아동의 정서지능이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아동의 정서지능보다 더 높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아동이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아동보다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다(유명주, 2004). 이는 초등학교 학급 내에서 개인

에 비해 학급 내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이 지닌 긍정적인 가치를 말해준다.

아동들은 또래들과 함께 교실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실의 공식적 문화를 집단적으로 재해석하여 교실학습에 참여한다(김정효, 1994). 아동들은 교사의 교수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교사와 함께 사회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협조자인 것이다. 보다 어린 유아들조차도 교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실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역으로 기여하기도 한다(이연선, 2006). 유아교실에는 두 사회가 존재하는데 즉, 유아교실은 교사와 유아 사이에 결성되는 사회이자 유아들 상호간에 결성되는 사회로서,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사회적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다.

### 3) 초등학교 밖의 아동문화

아동의 학교 밖의 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여가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박물관, 문화센터 및 체육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및 여가 생활, 그리고 방학이나 토요일(소위 ‘놀토’) 등에 이루어지는 캠프 혹은 놀이문화 등이다.

학습, 학교생활 이외에 경험하는 여가생활에 대하여, 아동은 “꼭 쉬는 것(정혜영, 2003)”,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것(심우섭, 2006)”, “기분 전환(최대옥, 1998)”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의 장점으로는 기분전환이 되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는데, 아동 중 학습에 도움을 준다(심우섭, 2006), 혹은 소질 개발에 도움이 된다(최대옥, 1998)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아동의 여가생활로는 공부(학

원이나 과외)가 가장 많았으며(심우섭, 2006; 정혜영, 2003), 하루에 소위 자유시간은 1-3시간 정도 였는데, 이 시간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터넷, TV 시청 등으로(심우섭, 2006; 정혜영, 2003)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의 여가활동이 실내에서 개인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이로 인한 아동의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학습, 아동의 소질 개발(최대옥, 1998)과 관련된 여가 활동에 대한 연구나 아동의 여가의 문제로 생산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각적이고 획일적인 여가 즉, 오락이나 노래방 TV 시청 등이 많았다(김지태, 2004; 조미경, 2003; 조성자, 2007)는 점이 그 특성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아동이 인식하는 여가는 휴식이라기 보다 학습이 강요되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의미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실내활동 위주의 여가활동이 많았으며 개인 또는 소집단 중심의 여가 활동이 많았고 감각위주의 기호성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성혜, 1996; 이철섭, 2005).

또한 방학 중 여가활동으로 원하는 것은 캠핑, 가족여행 등이 가장 많았으나(심우섭, 2006; 정혜영, 2003) 실제로는 컴퓨터 게임이 주를 이루었다(심우섭, 2006; 정혜영, 2003).

이외에도 아동의 여가활동 중 특히 아동의 방학 중 이루어지는 캠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습 및 질병치료 등의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학습과 관련되어서는 영어캠프 및 영어마을과 관련된 연구(송정미, 2007; 위은숙, 2007; 이재현, 2005; 이정미, 2007)가 가장 많았으며 치료 관련 캠프의 경우, 천식, 화상, 비만, 영양 등 건강 관련 캠프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김시내, 2008; 신보경, 2007; 이미경, 2009; 최미경, 2007; 최연희, 1997)가 있

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의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학습 혹은 분명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해진 공간에서의 여가생활,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는 만들어진 환경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 내 아동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지하철(최연희, 2008)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아동을 위한 공간이 “아동중심” 혹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되는 것이 시도(강건해, 2006; 강운호, 2005; 김희정, 2005; 오지선, 2006)되고, 활동에 있어서도 아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박선영, 2005; 이영옥, 2003; 황운현, 2008). 또한 도서관 활동이나 에듀테인먼트(윤석민, 2008; 최수의, 2003; 추효민, 2003)라는 이름의 체험학습장, 그리고 도서관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 아동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동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산업에 있어서 아동의 입장이나 관점이 전이나 공간의 구성, 그리고 활용 등에 있어서 중시되는 아동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가생활의 학습화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문화 공간, 활동 역시 대부분 자연스러운 여가활동이라기 보다 아동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도서관 활동의 경우, 논술 혹은 독서치료 등(경규란, 2007; 박금희, 2006; 임형연, 2004; 최선옥, 2005)과, 박물관의 경우 역사교육, 사회교육(김연숙, 2008; 오인택, 2002; 이동은, 2009; 이윤경, 2003) 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가 생활의 문화는 아동의 생활 거주지에 따라 그 실행 공간과 내용, 그리고 가

치 면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아동의 거주지역이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인 경우, 아동의 여가생활 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 공간은 학원이다. 그에 반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여가활동에서의 중심지는 여전히 학교였으며(백은숙, 2006), 아동의 여가생활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경우도 농어촌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그 일을 담당 한 반면(백은숙, 2006), 도시 지역의 경우, 다양한 전문 인력,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 학원 교사, 방과 후 교사 및 박물관 전문가 등(김수진, 2004; 이경희, 2003; 이숙현, 2007; 이윤경, 2003)이 그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을 위한 활동에서 성인이 주려고 하는 방과 후 활동은 목적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목적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질병 치료, 소비자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지닌 경우도 있다. 이는 아동에게 있어서 모든 놀이나 여가 활동 역시 목적 지향적 활동으로, 그리고 그 여가 활동도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아동이 원하고 즐겨하는 여가활동은 생산적(목적적)이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각적이고 도피적인, 그리고 성인의 개념에서는 소비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개인적이거나 자신과 통하는 아주 소수의 집단끼리의 활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 연구쟁점

연구대상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가정, 학교 내, 방과 후 활동 등에 나타난 아동문화에 대한 연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는 발달이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시기마다의 특성이 매우 분명하고 독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즉 “학동”이란 일의적 의미로 주로 이해될 뿐 사회문화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아직 모호하다. 그 때문에 현재 증가하고 있는 홈스쿨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인 청소년기를 포함한 아동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신분이나 정체성은 더욱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아동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체성 규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문화 개념과 전통 문화 개념이 동일한 의미 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음이 자주 눈에 띈다. ‘우리나라 문화’라는 말이 곧 일제강점기 이전의 조선, 고려, 통일신라, 삼국시대 등 과거 시대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의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 연구에서 현재, 지금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개념, 특히 현재의 아동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 관심이 아직 태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문화는 “빈 문화(empty culture)”라고 일컬어지는 바, 교육 내적 조건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그동안의 아동연구는 주로 양적인 연구 방법 즉 측정하고 비교하여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동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동들 삶 속에 직접 들어가 연구하는 질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아동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즉,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교 학생으로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영역의 참여자로서 등등 아동이 머무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들의 다양한 역할과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적응방식을 밝힐 필요

가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의 모든 문화는 지식습득, 학교학습이란 목적에 연계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아동의 여가활동 내용이 학교 학습내용의 연장선에서 구성되고 있으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학교의 학습 공간 성격과 다르지 않다. 박물관에 방문한 아동은 역사 교과서에 실린 사실을 찾아 숙지하는 것이 제 일의 목표이며, 도서관을 찾는 아동의 목적은 책을 찾고 읽는 기쁨 이전에 도서관 문화센터 논술반에 참여하여 학교 성적을 올리는 데 있다. 결국 아동들이 여가시간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태가 문화 향유가 아닌 단편적 문화학습(공부)의 단면에 불과한 현실이다.

다섯째, 아동문화의 한 축이 아동 스스로만 들어가는 문화라 하더라도, 그 심층에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성인세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아동이 자신의 직접적인 선택이나 관심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많은 부분이 이미 성인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문화의 틀 안에서 제공한 바인 것이다. 의식주를 예로 들자면, 아동이 입고·먹고·놀이하는 공간들이 그들 스스로 ‘입고 싶고·먹고 싶고·놀고 싶은 곳’이기보다는 성인세대가 아동에게 ‘입히려는·먹히려는·놀게 하려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는 아동문화 연구의 이중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자 아동문화의 형성과 향유라는 면에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섯째, 아동에게 음식은 우선적으로 먹거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음식은 중요한 문화의 한 측면으로서 조리 형식이나 섭생을 위한 음식으로서 뿐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예절과 행위양식의 영역도 포함한다. 일례로 우리나라 전통음식을 선호하거나 전통음식문화와 예절을 긍정적



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성인세대의 웰빙 음식에 대한 강조와 우리 음식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성인세대의 자부심이 은연중에 아동들의 인식과 섭식 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통문화 계승을 의식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전달하고자 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통제감, 자아개념 등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하는, 성인세대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아동의 자기 문화 형성 이전에 많은 부분 잠재의식으로 새겨져 있음을 파헤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일곱째, 최근 아동의 의복생활에 있어서 실용성, 심미성, 독립성, 유행성, 모방성에 대한 관심이 거론되는데, 남아는 실용성 여아는 심미성을 보다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TV나 잡지 등의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예인 의상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고 연예인 의상이나 무대의상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분별한 모방 및 동조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아동의 의복생활과 관련하여 심미성 실용성 경제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아동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디자인을 스스로 선택하며 구입할 때에도 자신의 의사를 십분 반영하는 의생활 문화의 양상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여덟째, 주생활을 도시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 각각의 주거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자신들의 주거형태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일인당 면적, 친자연적 환경요건, 교통이나 소방 등 안락과 안전 조건 등,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전성, 적절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거형태의 아동들이 자신의 집이나 주거지를 “놀이가 가능한 즐거운 장소”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본다면, 기성세대는 학교를 지식 전달과 습득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아동들은 학교를 친구들이 모이는 곳, 친구와 만나는 곳, 그리고 놀이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인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의 또래문화·놀이문화·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에 코드를 맞추고 지나치게 이른 시기의 선행학습이나 과도한 양의 지식을 주입시키는 학습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내에 아동들의 삶 즉 아동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다만 입시제도의 영향권 아래서 형성된 문화가 다분히 부정적 성향을 나타냄도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열 번째, 지역적 차이에 의한 아동 삶의 환경적 차이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달리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 한 시·도 생활권 내에서도 생활조건이나 문화적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열한 번째, 아동의 문화를 쌍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아동이 스스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가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성인들이 주조자 하는 문화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두 문화가 만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아동문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문화 연구는 주조자 하는 자(성인)가 누리하고자 하는 자(아동)에게 깊이 내재해 있는 의도를 읽고, 그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가활동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학부모는 과외활동이나 학원 활동을 통하여 “알찬 여가생활”과 “소질 개발”을 주조자 하나 아동은 “폭 쉬는 것”, “기분 전환”으로 생각하여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

동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문화적 환경을 ‘현재를 즐겁게 누리려고’ 하는 의도와 ‘행복한 미래를 주려고’ 하는 성인세대의 의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이유이다.

### Ⅲ 실제적, 정책적 이슈

위와 같은 쟁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아동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측면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기의 고유한 아동문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문화는 학교문화나 학습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문화는 학교와 학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화 창출의 기회의 장은 아동의 흥미와 관심, 창의적 발상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21세기 아동의 건강을 지키며 우리나라 전통음식문화의 맥을 잇는 조화로운 음식문화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육식지향의 서양 식단이 보편화되고 외국브랜드의 패스트푸드점이 국내에 다수 수입되어 외식문화가 일상화된 후, 우리 아동의 입맛과 건강은 왜곡되어 전통음식문화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통음식문화를 지키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이미 많이 변화된 현대 아동의 미각과 섭생, 그리고 음식자료 및 조리법 등 음식문화에 대한 실제 현상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건강한 미래 한국인을 키우는 식생활 조성 및 웰빙 식단 및 식사예절 등 식문화 의식을 고취할 교육자료

개발 및 아동을 지도할 교사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현대 아동에게 있어서 의복의 개념은 과거 시대 몸을 가리거나 추위 등 삶의 악조건을 피하는 수준의 의생활 개념과는 달리 개인적인 아름다움, 특별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계층과 부의 상징을 반영하며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의생활은 무엇보다 건강한 활동을 돕고 아름다운 자신을 가꾸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둘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의생활에 대한 아동의 의식 고취 및 자발적인 실천을 위하여 학교교육 및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넷째, 주생활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는 미약하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의 차이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지역적 차이가 아동들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배타적 인식을 조장하는 실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놀이터 없이 주차장과 동네 공사가 놀이터이고 자기 방이나 안락한 여유 공간 없는 좁은 집이 삶의 터전인 아동들도 아직 많다. 바람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관리 관련 정부의 실질적 방안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부모의 결단으로 아동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내 아동문화의 총체적 이해와 초등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과연 초등학생들은 또는 초등기 아동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삶의 양식, 삶의 조건, 삶의 원칙, 생존전략이 어떠한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양적인 측정만으로는 이들의 심층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현장 연구를 수반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수업시간에 또한 수업시간 외에 교실 등

학교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의 삶의 현상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자유롭고 인격적이며 긍정적인 삶의 문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 전공 학자와 교육정책입안자,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성인세대의 총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학습 이외의 아동의 삶과 연관되도록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 문화의 형성 및 가족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숲 체험, 자연 경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청된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유행해진 경제적 상황과 첨단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동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문화프로그램들이 결국 학교 학습의 연장이나 반복 학습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문화적 인식과 소양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기대된다.

문화는 교육될 수 있고 교육되어야 한다. 이 때 문화를 교육한다 함은 성인들이 강요하고 주입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동이 경험하고 창출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에게 성인이 주는 문화는 아동의 수용정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관련 정부 부처와 학교 당국, 학교 교사는 물론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 아동의 문화란

스스로 경험하고 창출해가는 것임을 철저하게 재인식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성인세대의 아동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에 대한 깊은 애정 및 심층 이해가 기초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아동문화는 제 모습을 갖추고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건해(2006). 어린이도서관에서 아동의 독서공간과 행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문화 · 윤기선(2009). 초등학교의 주요 가공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당, 나트륨, 지방류 등의 노출 실태조사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8(1), 52-61.
- 경규란(2007). 아동 성향에 따른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성혜 · 한유진(1996). 비행청소년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996, 봄), 91-104.
- 김경희(2004). 체중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만아동들의 식습관과 불안 수준의 변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9(3), 326-335.
- 김기봉(2007).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인은 누구인가?-민족정체성에서 공화국정체성으로. 경기대학교 인문논총, 15, 1-10.
- 김남희(2005). 비만아동의 트레이닝북 디자인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선 · 정혜영 · 여은아(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의복 성향과 의복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6), 612-623.
- 김선정(2008). 아동을 위한 식그릇 제작에 관한 연구 : 이중기 형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수연(2009). 동화 이미지를 응용한 아동용 칠 식기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라이프스타일 디

- 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2004). 트윈세대 아동의 의복 관심도, 연예인 동조성,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진(2004). 아동사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전문성이 어린이들의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진(2005). 초등 실과 의생활 영역에서의 환경교육이 아동의 의생활 환경인식에 미치는 효과.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희(2009). 특수학교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식습관과 학교급식 만족도 및 기호도 조사.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시내(2008). 화상캡션 프로그램이 화상아동과 부모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숙(2008). 구성주의에 기초한 박물관 아동미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임(2006). 신문광고를 통해 본 현대 아동문화의 변화-<소년한국일보>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1998a). 초등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밝혀진 후 : 교사와 행정가에게 주는 시사점. *교육인류학연구*, 1(2), 49-99.
- 김영천(1998b). 문화개념의 교육학적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1(1), 1-19.
- 김영천(1999). 청소년의 놀이문화와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2(1), 15-35.
- 김영희·서정숙(2004). 학교급식에서 편식 아동의 식생활 양상.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0(3), 345-355.
- 김용범(2009). 문화주택을 통해 본 한국 주거 근대화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주(2007). 주거유형에 따른 아동의 장소성 형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잔디·배운경·조미숙(2009). 식사도구 사용능력에 따른 뇌성마비아동의 식생활.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5(2), 139-151.
- 김정옥(2000). 아동과 어머니의 아동복 디자인 선호도 비교 : 5~7세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효(1994). 교실학습에서의 학생 간 상호작용의 역할 : 초등교육 수준에서의 사례 연구. *초등교육연구*, 8(1), 67-80.
- 김종철(2009). 미취학 아동의 가정용 시스템가구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2005). 아동발달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한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실 디자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금희(2006).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나영(2008). 경상북도 소재 농촌형 급식 초등학교 결식학생의 영양실태 조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남숙(2009). 일부 초등학생의 아토피피부염 유무에 따른 식습관, 식품섭취양상 및 영양소 섭취상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2005). 아동참여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생의 박물관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진(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 짓기 : 강북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43-81.
- 박순영(1996). 한국 도시 아동의 성장 발육상의 특성과 행동발달간의 상관관계. *한국문화인류학*, 29(2), 195-220.
- 박진희(2006). 전통음식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운영 실태조사. *이화교육논총*, 16, 241-252.
- 서근원(2000). 초등학교 학생문화를 위한 시론. 초등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구성원의

- 문화에 대한 이해, 59-105.
- 서영숙·이미정(2004). 아동의 박물관 이용 실태와 박물관의 아동 대상 서비스 실태 연구. *아동연구*, 14(2), 37-58.
- 신보경(2007). 전북 일부 지역의 초등학생의 비만 캠프에 의한 식생활의 변화.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은경·이진화·이연경·이혜성(2004). 단기간 영양교육캠프가 비만아동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4(7), 987-999.
- 심우섭(2006). 초등학생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영순(2009). 제주지역 초등학생의 식생활 실태 및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인택(2002).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박물관 학습전략의 탐색. *초등교육연구*, 17, 275-297.
- 오정란(2000). “초등학교 학생문화를 위한 시론”에 대한 토론(2). 초등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 112-118.
- 오지선(2006). 아동의 놀이행태에 따른 공립어린이도서관 리노베이션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위은숙(2006). 충북 초등영어 캠프에서의 체험에 대한 분석.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명주(2004). 초등학교 아동의 문화성향에 따른 정서기능과 분노표현 양식의 차이. *초등교육학연구*, 11(1), 151-168.
- 유혜령(1999). 소수 민족 유아의 유치원 생활 경험 : 현상학적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2(2), 139-170.
- 윤석민(2008).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 체험학습과 테마가 결합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최정윤(2003). 어린이박물관에서의 미술감상을 위한 체험식·비체험식 전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91-109.
- 이광규(1980). *문화인류학의 세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현(2004). 전통음식 문화와 유아교육. *아동교육*, 13(1), 241-264.
- 이등은(2009).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 덕수궁미술관 중심 사례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미경(2008). 비만아동의 6박 7일 캠프 참여가 비만도,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 및 염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성숙·박행모·방기혁(2009). 실과교육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과교육연구*, 15(2), 67-92.
- 이숙현(2007). 아동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연선(2006). 유아 교실의 또래문화 속에 나타난 남아와 여아의 권력관계. *유아교육연구*, 26, 311-331.
- 이영옥(2003). 초등학교 아동의 박물관 자료 인지에 관한 연구 : 4학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희(1998). 영어 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문화교육. *학생생활연구(서울교육대학교)*, 24, 89-115.
- 이윤경(2003).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역사교육프로그램 : 서울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은화·정진·박현주·김현정(2000). 문화와 놀이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1), 43-58.
- 이재현(2005). 단위학교에서의 효율적인 교내 영어 체험캠프 운영 방안 모색.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보*, 19, 32-79.
- 이정미(2006).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운영 사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보*, 2, 35-44.
- 이정선(2000). 한국의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3(3), 21-165.
- 이진화(2004). 단기간 영양교육캠프가 비만아동의 식품섭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철섭(2005). 대전광역시 중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덕(2006). 가정에서 정신지체아동의 식습관, 식사 태도 및 식품기호도 조사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2007).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전통식문화교육과정안 개발 : 요리활동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형연(2004).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393-414.
- 장남수 · 강은영 · 이종미(2000). 연변지역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와 식생활 양상. 한국영양학회지, 33(3), 324-331.
- 장봉옥 · 이윤경(2009).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의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15(1), 87-108.
- 정미경(2007). 초등학생 의생활 자립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3), 33-62.
- 정성진(2009). 창녕지역 초등학생의 김치 관련 기호도 및 섭취빈도 조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운선 · 이해상 · 박용임(2003). 비만 아동의 의생활 식생활 및 심리적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1), 155.
- 정진현(2001). 초등학교 실과에 있어서 주생활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초등교육논총(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17(3), 85-101.
- 정혜영(2003). 아동의 여가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강모(2000). “초등학교 학생문화를 위한 시론”에 대한 토론(1). 초등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초등학교 구성원의 문화에 대한 이해, 106-111.
- 조규승(2008). 키즈 마케팅을 위한 식품이미지 연구 : 면셀 기본 10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자(2007).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활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옥라 · 최봉영 · 신경아(2003).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내재된 전통과 근대의 문제 : 집단과 개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6(1), 3-42.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용환 · 서근원(2004).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산들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7(1), 211-244.
- 주나미 · 김성희 · 박희나(2006). 아동의 간식섭취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1(2), 193-201.
- 최대옥(1998). 초등학교 아동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경기도 소재 3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목화(2008).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외부 환경. 건축, 52(1), 45-48.
- 최미경 · 이윤식(2008). 편식하는 비만 아동의 식행동, 맛 선호도 및 영양 섭취 상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8(1), 127-134.
- 최미경 외(2007). 일부 비만 초등학생을 위한 건강영양 캠프의 효과 평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10), 79-87.
- 최미숙 · 정은희 · 현대선(2002). 충북지역 아동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기호도- 명절 음식, 떡, 전통음료.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4), 399-410.
- 최선옥(2005).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독서치료 사례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수익(2003). 어린이를 위한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무선인터넷 기반의 직업 시뮬레이션 게임 시나리오 개발. 경성대학교 디지털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연희(2008). 지하철에 적용되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추효민(2003). 초등학생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사이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혜미·이성숙(2008). 초등학생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과교육연구, 21(2), 111-131.

황윤현(2008). 아동의 학습양식에 따른 어린이박물관 전시콘텐츠에 대한 이해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09년 8월 16일 투고, 2009년 10월 26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